금수강산
11
주체111(2022)
루계 제399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1(2022)년 11월호

제399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가을을 맞이한 기쁨

황해남도 벽성군 서원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다.

벼단을 안은 농장원들의 얼굴에는 봄내여름내 구슬땀을 흘려온 전야에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된 기쁨이 실려있다.

주대혁

08

18

28

45

56

60

편집: 최은혁, 서철남, 최경희　　ㄱ-2280210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올해 당과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로 책정되고 성과적으로 추진되여온 련포온실농장건설이 뜻깊은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되였다.

대규모남새생산기지인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이 10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중대사항으로 관심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동부전선의 공군기지를 대규모온실농장으로 전변시키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건설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은 련포창조정신, 련포불바람을 일으키며 불과 230여일동안에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거대한 온실농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여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옹근 하나의 대농장지구가 가슴뿌듯한 장관을 펼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무연하던 벌판에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은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동해기슭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보배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세계최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가 성대히 준공하게 된것은 함경남도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기쁨이고 경사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은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과 뜻, 숨결과 보폭을 같이하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과 우리 국가특유의 국풍인 군민대단결의 힘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부감하시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서 혁명군대 지휘성원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건설부대 지휘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매남새온실을 비롯한 생산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품종을 더욱 늘이고 온실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며 중평온실농장과 생산경쟁을 벌리면서 실지 함경남도인민들이 덕을 보는 농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서 인민들에게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련포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각 도에 건설하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련포지구에서 공산주의농촌마을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련포전역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결사관철의 헌신적투쟁기풍을 발휘하여 올해 당과 국가의 최중대건설정책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　　*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시여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조선로동당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완강히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써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이다.

오늘 공화국은 장구한 발전행로에서 존엄높고 긍지높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맞이하였다.

공화국은 무진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라고 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해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위상이 급격히 상승되였기때문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2012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국인민은 참으로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헤쳐왔다.

공화국을 질식붕괴시키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가증되였고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 큰물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악성비루스의 전파는 사회주의건설에 막대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이런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은 새로운 발전의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갔다.

그 나날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히 다져졌다.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고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국가의 공고한 정치풍토, 당풍, 국풍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떠받들고 보살피는 공화국의 국책에 의해 조국땅우에 수많은 창조물들이 일떠섰다.

최근년간에만도 려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등이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현상유지만도 기적적으로 여겨질 상황속에서도 공화국은 사회주의건설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경제의 명맥이 굳건히 고수되였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의 주체화, 자립화를 위한 길에서 소중한 성과가 이룩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다져지고있다.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축적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차게 벌어지고 있다.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수 없는 값진 성과들은 공화국의 전진발전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세계는 아직 공화국과 같이 크지 않은 나라가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봉쇄와 제재속에서도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뿐 아니라 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례를 알지 못할것이다.

뿐만아니라 공화국은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강력한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여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지난 10년간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상상을 초월한것이였다. 그러나 공화국은 기존상식으로는 20년, 30년이 걸려도 해내지 못할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민족사적대업을 단 몇해사이에 실현하였다. 공화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함으로써 대국들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가 종식되고 조국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땅에서 자자손손 번영할수 있게 되였다.

조국인민은 이 땅우에 펼쳐진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탄생한 영광넘친 시대라고 말하고 있다.

주체101(2012)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실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그 이듬해의 5월에도 그이께서는 나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것이 나의 결심이라고 하시였다.

조국을 세기의 령마루에 올려세우고 조국인민에게 높은 존엄과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는것이 그이의 웅대한 뜻이고 리상이다.

그이를 높이 모시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줄달음치는 자랑찬 력사를 아로새기게 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이끄시는 그이의 애국의 장정은 바로 이 숭고한 목표실현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국가의 강성과 번영은 오직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위력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연설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선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오직 우리 힘으로.

그이의 신념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대회와 중요회의들의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제7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들에도 담겨져있다.

이것은 인민의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되였고 억센 추동력이 되여 천만대오를 자력번영을 위한 진군에로 힘차게 떠밀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은 근본원천으로 되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애국리념, 애국의지의 밑바탕에 놓여있는것은 과연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오직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였다.

세상에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이 하늘이고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신조를 지니신 그이이시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수령님들처럼 인민을 위해 뜨거운 정과 심혈을 쏟으시는것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으로 간주하고 계신다.

그이께서 열화같은 조국애와 숭고한 인민관이 구현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우에 빛나는 기치를 마련하신 또 하나의 사변이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인민의 가슴마다에 자존심과 정신력을 백배해주는 자양분으로, 주체조선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조국땅 그 어디서나 우리 제도, 우리 정권,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신념이 맥박치고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의 위대한 력사를 써나가려는 열정이 분출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여 온 나라를 애국과 창조로 끓어번지게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에 의해 마침내 조국땅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장구한 인류력사에 비해볼 때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10년,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 땅에 펼쳐진 벅찬 새시대의 숨결을 느끼며 인민은 마음속진정을 터치고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주체조선을 반드시 강국으로 건설하실 신념과 의지에 의해 이 땅우에 밝아왔다고.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김광림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위민헌신의 나날에

깊이 새겨주신 복무관점

언제인가 평양시에 건설된 어느한 상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층에 꾸려진 칠면조고기매장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상점일군에게 칠면조는 몇kg 나가는가고 물으시였다.

5~14kg 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이렇게 큰 칠면조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고가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매대입구에 놓여있던 밀차를 그이께 보여드리면서 손님들이 상품을 이 밀차에 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상점에 승강기를 놓을데 대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상점을 떠나시기에 앞서 앞으로 놓게 될 승강기에 대해 다시금 의논해주시고 상점에 빨리 승강기를 놓아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자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기념사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여름철의 무더위가 계속되던 주체105(2016)년 8월 17일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였다.

가지마다 주렁진 사과알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사과밭으로 들어서시였다.

이윽하여 사과나무들에 사과들이 많이 달렸다고 거듭 뇌이시며 그이께서는 시종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자고, 풍요한 사과작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우리 인민들에게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사과농사가 얼마나 잘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사과들이 주렁진 사과나무앞에 다가서시였다.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진정에 일군들은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중앙홀에 꾸려진 휴식장소

기온이 33℃를 기록하던 주체101(2012)년 7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그날 류경원의 공기조화가 아직 잘되지 않다나니 건물안의 온도는 바깥이나 다를바 없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중앙홀로 들어서시였다.

그때 중앙홀은 텅 비여있었다.

그이께서는 중앙홀에 아무것도 없으니 무엇을 채워놓지 못한감이 든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여기에 기단을 형성하고 돌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은 다음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홀은 휴식홀인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하나의 공간마저도 인민들의 편의에 복종시키도록 마음쓰시는 그이이시였다.

*　　*　　*

주체사상이 밝힌 민족문제

민족은 사람들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다.

사람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있는것만큼 민족문제의 옳바른 해결은 민족성원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은 민족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민족문제의 본질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라는것이다.

민족의 자주성이란 온갖 형태의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려는 민족의 본질적속성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것처럼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민족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은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결히 고수하고 실현해나가는 원칙으로서 민족문제해결의 핵으로 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해야 민족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피눈물나는 망국의 력사와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의하여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의 실태가 잘 보여주고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으며 민족문제의 포괄범위도 대단히 넓다.

민족문제에는 민족의 내부문제, 민족들사이의 관계문제,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문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다 자주성을 지향하고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민족문제들도 본질에 있어서는 다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할 때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민족문제해결의 근본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민족적단결을 이룩하는것이다.

민족문제는 민족이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문제인것만큼 어떤 민족문제에 있어서나 그 해결의 주체는 그 민족자신이다.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체로 될 때에만 민족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으며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민족문제해결의 주체는 하나로 굳게 단결된 민족자체이다.

어느 민족이나 민족성원들의 공고한 단결을 실현할 때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민족문제들을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 성과적으로 풀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며 하나로 굳게 단결된 민족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민족의 단합이야말로 온 민족을 자기 운명개척의 주인으로, 민족문제해결의 주체로 전변시켜 모든 민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주체사상이야말로 민족문제해결의 옳바른 지도적지침을 마련한 민족자주의 사상이다.

본사기자 김지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기쁨과 슬픔

(전호에서 계속)

이 마을이 류가분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한것은 류가성을 가진 사람이 제분소를 차려놓은 때부터였다고 한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나서 넓다란 제분소 앞마당에 우등불을 피웠다.

유격대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린접부락의 사람들까지 류가분방으로 찾아왔다. 마을의 조직책임자들은 이집저집에서 멍석도 모아오고 이웃마을 손님들이 걸터앉을 강대며 서까래도 끌어왔다. 제분소마당에 모인 군중은 수백명 되였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등불두리에 빽빽이 앉아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밤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들어가 조직사업도 많이 하고 정치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그때처럼 무더기질문을 받아본 날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목이 갈려서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군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되였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에게 물은것은 유격대가 어떤 군대이며 유격대와 독립군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것이였다. 그들도 소사하에서 한달전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조직된 사실을 알고있었다. 단순하고 평범한 질문같지만 거기에는 새로 탄생한 무장력에 대한 기대와 그 힘에 대한 반신반의의 감정이 깔려있었다. 독립군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이고 반일인민유격대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복잡하게 유격대라는것을 따로 내올 필요는 무엇인가? 독립군도 어찌지 못하는 일본군대를 유격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꺼꾸러뜨릴 승산은 있는가? 승산이 있다면 그 담보는 무엇인가? 독립군에게서 시달림도 많이 받고 독립군의 실패에서 암담한 절망감도 수없이 맛보아온 류가분방의 군중들이 알고싶어하는것은 요컨대 이런것이였다고 생각된다.

나는 될수록 쉽고 간명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반일인민유격대란 별다른 군대가 아니다. 말그대로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의 군대이다. 이 군대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과 청년학생, 지식인들로써 무어졌다. 반일인민유격대의 사명은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조선민족의 독립과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는데 있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의병과도 다르고 독립군과도 다른 새형의 군대이다. 독립군의 지도사상이 부르죠아민족주의라면 항일유격대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사상이다. 공산주의사상이란 쉽게 말하여 빈부귀천의 차별을 모르고 만사람이 다같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수 있는 세상을 세운다는 사상을 말한다.

돈있는 사람들이 주인된 사회를 세우는것이 독립군의 리상이라면 근로하는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건설하는것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리상이다. 독립군이 여러분과 같은 평백성들을 광복운동의 협조자로, 동정자로 보아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항일혁명의 담당자로, 주인으로 보고있다. 독립군이 외부세력에 많은 기대를 걸고 그들의 힘을 빌어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더 믿고 그 힘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한다.

의병의 뒤를 이어 독립군이 그동안 만주산야와 조국의 북부지대에서 십수년동안 일본침략자들과 혈투를 벌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립군의 군세는 점점 허약해지고 지금은 그 존립마저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였다. 독립군이 이루지 못한 조국광복의 성업을 우리가 완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조직한것이 바로 반일인민유격대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마을의 한 청년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병력이 몇천명쯤 되는가고 물었다.

나는 아직 초기여서 몇천명까지는 되지 않고 수백명 된다, 지금은 유격대가 수적으로 많지 않지만 조만간에 수천수만명으로 불어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청년은 내 말을 듣고나서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특별한 절차나 격식은 없다, 싸울 각오가 되여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준비는 좋아야 한다, 입대는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고 부대를 찾아와 직접 청원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있던 여러명의 마을청년들이 즉석에서 나를 에워싸고 우리가 입대를 청원하면 이 자리에서 받아주겠는가고 물었다.

우리로서는 사실 큰 횡재를 하는것이나 다름없었다.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입대하더라도 당분간은 무기가 없이 지내야 하겠습니다. 무기는 전투마당에서 자체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도 입대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청원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수락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무기가 없어도 좋으니 유격대를 따라가겠다고 간청하였다.

그렇게 되여 우리는 여러명의 마을청년들을 신대원으로 흡수하게 되였다. 그것은 류가분방이 청소한 우리 유격대에 준 예상치 않았던 선물이였다. 우리는 이 선물앞에서 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혁명동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두 사람, 세사람의 동지를 잃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었던 당시의 형편에서 열명 가까운 청년들을 단꺼번에 대오에 받아들였으니 그때의 우리 심정을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것이다.

생눈을 움켜먹으며 풍찬로숙의 어려운 길을 걷는 혁명가들에게는 부르죠아지나 시정배들이 맛보지 못하는 고유한 향락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전우를 얻게 될 때에 느끼는 가슴을 뻐근하게 하는 정신적충만감이다. 어제까지는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사선을 헤치고 입대를 청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메워주면서 속세에서는 도저히 맛볼수 없는 참으로 숭엄하고 장쾌한 희열을 느끼였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식의 기쁨이고 향락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날 밤 유격대원들은 신입대원들을 축하하는 오락회를 열었다. 나와 차광수도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이처럼 품을 얼마 들이지 않고서도 큰 소득을 얻을수 있은것은 9. 18사변직후의 민심이 그만큼 항일유격대에로 크게 쏠리고있었던데 기인된다.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조선사람은 여기서도 마음놓고 살수가 없게 됐다. 만주에서도 기를 펴고 살지 못할바에는 죽든살든 한번 결판을 내보자는것이 그 당시 조선청년들의 공통된 심리였다.

우리는 밤새껏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이 다되여서야 우등불곁에서 멍석과 삿자리를 펴고 유격대조직후 처음으로 되는 로숙을 하였다.

조선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유격대가 로숙을 하면 류가분방 백성들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가고 하면서 마을사람들이 막 야단을 하였으나 우리는 조직책임자들이 알선해주겠다는 농가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로천에서 하루밤을 지냈다.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마을사람들의 청을 사양한것도 사실이지만 혁명가는 따뜻한 아래목의 보금자리보다 거치른 잠자리를 더 응당한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일종의 랑만적인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마을사람들의 성의를 마다하게 하였다고 본다.

우리는 남만원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이 마을에서 하루밤 숙영하였다. 그때 우리가 숙영한 곳은 려수문이라는 중국로인의 집앞이였다. 그 집앞에 큰 감자굴자리가 있었다. 우리는 그 감자굴자리에 곽초를 엮어 바자를 두르고 그안에서 불을 피우며 하루밤을 지냈다.

(다음호에 계속)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생산적앙양을

굴지의 주체비료생산기지인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있다.

기업소에서는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기술자들은 물론 로동자들도 기발한 착상,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더 많이 내놓는 길만이 비료증산의 활로를 여는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그 과정에 가스발생공정과 봉탄건조공정을 개조하여 질좋은 비료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정들을 개조한 결과 자재와 로력이 절약되고 가스발생로들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국가에 많은 리득을 주게 되였다.

공정개조의 발기자들속에는 평범한 로동자들도 있다.

기업소에서는 현장로동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나갈 목적밑에 직장들에 새기술착상함을 설치해놓고 적극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로동자들은 새기술착상함을 통해 설비와 공정개조 등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안들을 제출하고있다.

탄산가스의 순도를 높여 질좋은 비료를 생산할수 있게 한 용액순환뽐프의 능력개선과 전력계통의 조종프로그람개발, 청정가스에 의한 촉매환원방법 등이 그 실례이다.

가스청정직장 책임기사 강경삼은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새기술착상함이 직장에 놓였을 때 나부터도 저기서 무슨 큰것이 나오겠는가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함에서는 비료증산에 이바지하는 새기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있다. 지금에 와서는 일군들부터가 출근하면서 착상함을 열어보는것이 하나의 일과로 되고있다. 기업소사람들 누구나 이 함을 착상 <샘>이라고 즐겨부른다.》

기업소의 종업원들에게는 늘 몸에 지니고다니는 수첩이 있다. 수첩들마다에는 생산과정에 제기되였던 일들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착상이 적혀있다. 그것은 기술자들의 방조에 의해 기술혁신으로 전환되고 나아가서 비료증산으로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건설장들에 더 많은 골재를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해운사업소는 골재채취와 강하천운수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소이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지난해 송신, 송화지구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골재보장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지금도 이곳 종업원들은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사업소의 어디를 가보아도 집단적혁신으로 더 많은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활기에 찬 모습을 볼수 있다.

기사장 차성근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데서 우리 사업소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사업소에서는 날로 높아가는 골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을 앞세워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면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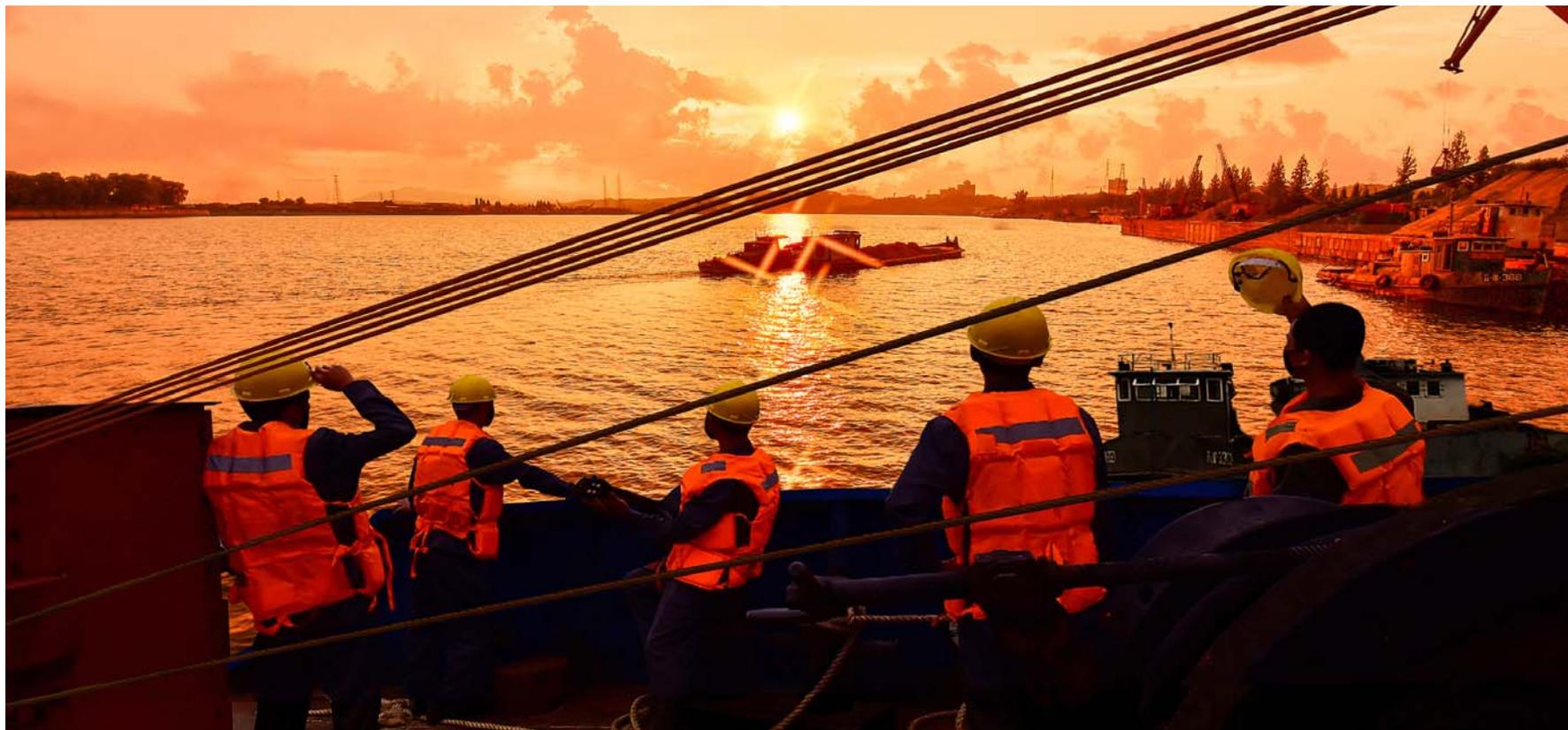
사업소에서는 굴착기부선을 비롯한 준첩설비들의 정상가동과 끌배, 부선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결과 부두개축 등 수백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골재증산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골재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굴착기부선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예비기관의 가동준비를 비롯한 면밀한 기술적대책들을 세워 한개 직장에서만도 하루에 천여㎥에 달하는 골재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골재들을 가득 실은 자동차들을 주요건설장들로 련이어 떠나보내고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뚜렷한 위훈의 자욱을 수놓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일에 헌신하는 사업소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골재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은혁
사진 본사기자 임 철

생산토대를 강화하여

평양대성차바퀴공장의 생산자들이 재생차바퀴 생산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고있다.

검사, 연마, 진공압착 등 모든 생산공정들의 흐름선화, 자동화를 실현하여 질좋은 재생차바퀴들을 다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공장에서는 올해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목표를 세우고 생산잠재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리영진지배인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중요대상건설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다. 이에 따라 륜전기재들의 리용률이 높아지고있으며 그 어디에서나 요구하는것이 차바퀴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는 크다.》라고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발전에 두고 생산공정을 보다 원활히 한것을 비롯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생산에 앞세우고있다. 이 과정에 하반년 생산계획수행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삽차바퀴재생공정이 새롭게 확립되였으며 성능높은 100t프레스도 제작되여 각종 재생차바퀴를 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이외에도 공장은 자체의 기술력량을 부단히 강화하여 여러종의 시약들도 개발리용함으로써 생산정상화의 큰걸음을 내짚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자료들도 제때에 들여다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높여나가고있다.

결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속에서 각종 재생차바퀴들의 형타와 재생고무탈류기의 제작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됨으로써 공장의 생산토대는 한층 강화되였다.

과학기술을 공장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이곳 생산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그대로 생산성과에로 이어지고있다.

현재까지 공장에서는 각종 규격의 승용차들과 화물자동차, 삽차 등 륜전기재들에 필요한 차바퀴들을 재생하여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 보내주었으며 생산된 제품들은 운전사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이들은 평양역-련못동 로선을 운행하는 무궤도전차 181호의 운전사들이다.

부부 운전사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에 운전사부부들이 있다.

그들중에는 공훈자동차운전사들인 허명금, 최홍기부부도 있다.

이들은 30여년간 한 무궤도전차에서 교대운전사로 일하고있다.

허명금녀성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운전사생활을 시작하였고 남편인 최홍기는 군사복무를 마치고 조향손잡이를 잡았다.

《처녀총각시절부터 우리는 경쟁대상이였습니다.》라고 최홍기운전사는 말하였다.

해마다 총화사업이 있을 때면 어떤 해에는 허명금이 1등을 하고 어떤 해에는 최홍기가 1등을 하군 하였다.

그러다나니 최홍기는 자연히 허명금을 주시하게 되였고 그의 알뜰하고 깐진 일본새에 탄복하였으며 자기의 교대운전사로 선정하게 되였다.

이 나날 그들은 사랑을 약속하게 되였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변함없이 운행길을 이어오게 되였다.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부부의 운행길은 계속되였고 그들은 언제나 혁신의 앞자리에 나란히 섰다.

사업소의 혁신자영예게시판에는 그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군 하였다.

일요일, 명절날에도 그들은 수도시민들의 운수보장에서 기쁨을 찾군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힘들 때가 있었다.

그것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였다.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무궤도전차들이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운전사들이 하나둘 전차에서 내리기 시작하였다.

같은 사업소에서 일하는 그들이지만 함께 있는 시간은 교대시간뿐이다.

그들의 마음에도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게 내릴수 없었다. 무궤도전차는 이들에게 있어서 살점과도 같았던것이다.

차가 고장나면 밤을 새워가며 수리를 한 이들이였다.

그들은 매일 무궤도전차에 오르며 수고한다고 말을 건네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에서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더욱 굳히였던것이다.

그들은 차관리를 더 알뜰히 하였고 예비부속품을 미리 장만하여 무사고주행길을 달렸다.

현재까지 그들이 달린 무사고주행거리는 170여만km에 달한다.

그 나날 허명금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전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07호구 제102호분구 선거장에 나오시여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허명금에게 투표해주시였으며 인민의 대표답게 일을 잘하라는 고무의 말씀도 해주시였다.

나라에서는 그들에게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으며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를 수여하였다.

그들부부는 지난 4월에 중구역 경루동 14인민반에 입사하였다.

모든 생활조건이 갖추어진 집의 주인으로 된 허명금은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고, 별을 이고 나갔다가 별을 이고 들어오는것을 누가 알긴 아는가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다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사람이 부러워하는 공훈자동차운전사부부, 경루동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평양역과 련못동사이의 운행길을 이어가고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운전하는 무궤도전차 181호에 존경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이 가정에 드물게 찾아오는 《명절》은 그들이 함께 휴식하는 날이다.

30여개의 과외소조운영으로

평양시 서성구역에 있는 상신초급중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과외소조활동을 잘하는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학교에서는 수학, 자연과학, 국어, 정보기술, 성악, 탁구 등 30여개의 과외소조를 운영하고 있다.

안성애교장은 《우리 학교에서는 소조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고 매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과 개성에 맞는 재능을 계발시키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 인생에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디기도 한다.》라고 말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원들의 실력제고사업을 더 힘있게 벌리는 한편 혁신적인 소조운영방법들을 도입하여 소조운영의 효과성을 높이였다.

학교에서는 크게 학생들을 학년별로 수준에 따라 2개의 부류로 가르고 1부류에는 처음부터 해당 소조에서 배우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넣고 2부류에는 실력이 약한 학생들과 새로 온 학생들, 매일 다른 소조를 마치고 후에 해당 소조에 오는 학생들을 망라시키였다. 그리고 이에 맞게 서로 다른 과정안을 가지고 소조운영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소조마다 자기 특성에 맞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영어소조에서는 학생들을 수준과 심리에 따라 우수한 학생과 중간급학생, 실력이 약한 학생들을 적절하게 배합한 5개의 조를 뭇고 소조를 운영하고있다.

조마다에서는 앞선 학생들이 뒤떨어진 학생을 도와주고 뒤떨어진 학생은 앞선 학생을 따라잡으며 실력차이를 줄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은 교원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발표도 하면서 배운 지식을 깊이 체득하고 공고히 해나가고있다. 특히 소조에서 진행되는 조별 실력경쟁은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고있다.

1학년 8반의 심호흥학생은 소조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영어실력이 제일 뒤떨어져있었지만 소조에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2달만에 앞선 조에 들어가게 되였다.

학교에서는 비교적 인원수가 많은 지능과 예능, 체육소조에 대한 운영도 방법론있게 진행하고있다. 소조운영시간을 늘여 다른 소조에서 공부하다가 오는 학생들이 모두 소조운영에 참가하게 하는것과 함께 교육을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준비정도에 맞게 진행하여 인식효과를 높이도록 하고있다.

탁구소조에 다니는 3학년 2반의 하현명학생은 탁구에만 치우친것으로 하여 수학과 화학을 비롯한 학과목성적이 떨어지게 되였지만 수학과 자연과학소조에 망라되면서부터 점수가 차츰 높아지고있다.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하여 그 어떤 과목이든 자기도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된 학생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있다.

이것은 학교의 명예를 떨치게 하는 요인들중의 하나로도 되고있다.

학교는 주체108(2019)년에 평양시적인 본보기학교로, 올해에는 전국적인 초급중학교부문의 기준학교로 선정되였으며 해마다 상급학교입학률에서 시적으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진행된 청소년학생들의 체육경기대회 바드민톤종목경기에서 1등, 제7차 전국초급중학교 축구반 축구경기대회에서 1등, 시적으로 진행되는 취주악경연에서 1등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상신초급중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외소조활동은 전국각지 교육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오늘 오후생활은 어떻게 흘러갈가?》

이것은 서성구역 상신초급중학교 학생들이 수업후 갖게 되는 공통된 생각이다.

학생들은 지리, 미술, 정보기술,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희망을 자래우고있다.

회복치료에 바쳐진 40여년

서성구역병원 회복치료과 과장 윤복숙

《나는 찾아온 환자들이 병을 털고 웃으며 병원문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하다. 환자들의 웃음이 곧 나에게는 그 어떤 명예칭호보다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질병치료에서 비침습적, 비약물성치료방법이 적극 도입되면서부터 그에 쓰이는 의료기구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있다.

서성구역병원 회복치료과에서 개발하여 기능장애치료에 도입하고있는 휴대용저주파약물침투치료기는 몇년간의 림상검토에서 놀라운 치료효과를 보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정을 받고있다.

치료기는 병원의 회복치료과 과장 윤복숙이 창안한것이다.

여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치료기는 약물에 적신 도자를 환자의 병조부위에 대고 저주파로 일정한 세기의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여있다.

이때 리용하는 약물은 여러가지 항염, 항생제효능이 높은 고려약물을 선택하는데 이 치료기를 리용하면 그 약리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윤복숙과장은 이 치료기구로 최근년간에만도 추간판탈출증, 경추증, 활액낭염, 무균성괴사, 안면신경마비와 대상포진 등 난치성질병으로 고생하는 수백명의 환자들을 완치시켰다.

그의 치료술은 평양시를 벗어나 전국에 소문이 났다.

현재 그에게서 치료를 받고있는 한 남성환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젊어서부터 추간판탈출증과 활액낭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였다. 수기치료와 함께 약물치료 등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아보았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 회복치료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부터 3일도 안되여 효과를 보기 시작하였다. 과장선생의 독특한 치료방법은 나에게 신심을 주고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의 허리를 고쳐주는 사람을 평생 업고다니겠다고 입버릇처럼 외웠는데 실지 그날이 가까와진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환자의 밝은 웃음은 그에게 바쳐진 윤복숙과장의 정성을 그대로 엿보게 하였다.

윤복숙은 40여년간을 의료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

어린시절 무용배우가 될 꿈을 안고있던 그는 보건일군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되였다.

고질적인 질병으로 늘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정성껏 간호해주며 애쓰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폐부로 느낀 그는 자기도 한생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복무하는 보건일군으로 살 결심을 하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그는 평양시보건간부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의료일군으로서의 첫걸음을 떼게 되였다.

그후 그는 전공분야인 회복치료의술을 높이기 위한 폭넓은 지식습득과 난도높은 수법들을 찾는데 전심전력하였다.

수많은 림상실천을 통해 그는 수기치료에서 남다른 실력을 발휘하였고 회복치료에 필요한 상박관절운동기, 주관절운동기 등 많은 의료기구들을 창안제작하여 50여개의 과학기술증서들을 받았을뿐 아니라 여러건의 가치있는 론문들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각이한 병명의 수많은 환자들의 기능장애를 회복시켰다.

이곳 과의 의사들은 지금까지 환자들이 버리고간 지팡이수가 아마도 수백개는 넘을것이라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과장선생의 의술과 정성에 대해 잘 알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그의 능한 치료술과 극진한 정성을 두고 그를 박사나 높은 명예칭호를 소유한 의료일군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학위나 명예칭호가 없다.

치료성과를 거둔데 비해 너무도 소박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윤복숙의 남편인 김철호는 비뇨기외과부문에서 40년간을 일해온 유능한 의료일군이였다.

그는 보건부문에서 사업할 때 여러 의학과학기술축전에서 우승하군 하였다.

김철호는 년로보장을 받은 몸이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가는 안해의 사업을 적극 방조해주고있다.

동심에 맞는 옷들을

조선옷은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징표의 하나이다.

조선민족의 풍습과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는 조국에서는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조선옷들을 즐겨 입고있다.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옷을 해입혀 내세우려는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하나와 같은 마음이다. 어머니들의 이러한 마음에 만족을 주는 양복점들중의 하나가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위치하고있는 어린이양복점이다. 이 양복점은 주체59(1970)년 천리마거리가 건설되면서 세워졌다.

지난 수십년간 양복점에서는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양복, 운동복, 무대의상, 일상옷, 솜옷, 외투를 비롯하여 다양한 용도의 어린이옷들을 전문으로 만들어 봉사하였다.

그중에서도 어린이조선옷들은 어느것이나 다 어린이들의 심리와 성별, 나이별특성에 맞는것으로 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제작자들은 생기발랄한 어린이들에게 어울리는 천색갈을 택하고 그우에 수놓이와 그림그리기로 꽃무늬를 조화롭게 넣어 색대조를 이루도록 하고있다. 이렇게 만든 어린이조선옷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평양미술대학 산업미술학부를 졸업한 책임자 김충효는 어린이옷도안전문가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색동옷의 특징을 최대로 살리기 위한 방도를 찾아 때로는 민속학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조선옷제작과 관련한 도서들도 탐독하여 견문을 넓혀가고있다.

그는 아동조선옷과 함께 주문자들의 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탐구하여 수백건의 각이한 형태의 어린이옷도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어린이옷도안들은 어느것이나 아기자기하고 편리한것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웃옷과 바지에 달아주는 주머니는 어린이의 나이와 성격에 맞게 특이한 모양으로 편리한 위치에 정해주고있으며 외투는 같은 천으로 모자와 목도리도 만들어 조화되게 하고있다.

《사실 어린이들의 옷제작은 어른들의 옷보다 품이 더 많이 듭니다. 어린이옷을 지은 다음에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부모들의 마음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옷을 입게 될 어린이의 나이와 성별, 심리, 성격에 따라 색갈과 형태는 물론 천재질과 단추,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충효의 이 말은 그가 모든 주문자들의 요구에 꼭 맞는 새옷도안창작을 위해 얼마만한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는 자주 유치원과 탁아소, 유원지 등을 찾아 어린이들과 어울리고 부모들이나 교양원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린이들의 개성적인 특징을 찾아내고 그에 따라 어린이옷도안을 착상하고있다.

재단사와 재봉공들은 옷도안에 충실하면서도 주문자의 의도와 어린이가 입게 될 옷의 용도, 그의 심리적 및 육체적특성을 충분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옷제작에 들어가고있다. 비록 크지 않은 어린이옷 하나에도 자기 자식에게 새옷을 해입힌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안고 제작하는것으로 하여 양복점에서 만든 어린이옷들은 언제나 주문자들에게 만족을 주고있다.

음악신동들을 많이 키워내는 경상유치원에 다니는 최려은어린이의 어머니는 《우리는 이 양복점의 단골손님입니다. 얼마전에도 딸애의 치마저고리를 이곳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려은이도 좋아하고 내 마음에도 꼭 듭니다.》라고 말하였다.

양복점에서는 하나의 옷도안에 의한 다량제작을 절대금물로 여기고 어린이옷주문자들의 요구를 최대로 만족시켜주는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주체111(2022)년 7월 촬영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람작성도전경연

전국적인 규모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람작성도전경연 《개척자-2022》가 진행되고있다.

경연에는 전국의 대학,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학생들은 물론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 각지 근로자들, 프로그람애호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정보화연구소 정보학연구실 실장 정철룡은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프로그람개발능력을 높이는데 이 경연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대학에서는 참가자들을 직업 등에 따라 여러 부류로 나누고 그에 해당한 문제들을 제시하고있다.

참가자들은 경연에서 프로그람작성언어의 문법, 표준자료구조, 표준함수들을 활용해야 하는 단순하고 기초적인 문제들과 동적계획법문제, 탐욕법문제, 그라프리론문제 등 난도높은 문제들,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게 된다.

준결승단계와 결승단계에서는 이외에도 1개의 도전문제를 더 풀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경연에 백수십개 단위의 천수백명이 참가하였다면 올해에는 수백개 단위에서 수천명이 참가하여 순위를 다투고있다.

지난해에 1등을 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학생 김예휘는 경연에 참가하여 많은것을 배우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경연에 제시된 문제들은 지난해보다 난도가 더 높았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풀이방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나는 자만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경연에 참가하고있는 로동자 리일섭은 《문제들이 실천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경연은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있다. 도전경연에 나도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고급중학교부류 예선단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원산제1중학교 학생 장금성은 경연에 참가하면서 프로그람작성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였다고,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하여 결승에 꼭 참가하겠다고 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프로그람작성도전경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일봉

녀자체조감독 김춘필

김춘필은 40여년간 감독으로 있으면서 김광숙, 홍은정과 같은 세계선수권보유자, 올림픽금메달수상자들을 포함하여 훌륭한 기계체조선수들과 100여명의 전문가들을 키워냈다.

평양체육단에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지만 선수후비육성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는 감독이 있다. 그가 바로 녀자체조감독 인민체육인 김춘필이다.

그에게는 부피두툼한 색날은 훈련일지가 있는데 첫 페지에 이렇게 씌여져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 언제나 마음속에 공화국기를 안고 살자!》

김춘필의 감독생활 40여년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흘러왔다.

실지 그는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난도동작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연구를 진행하여왔다. 40s정도의 시간내에 난도동작들을 수행해야 하는 고저평행봉이나 25m의 거리를 달려 기교동작을 수행하는 조마운동에서 선수들의 체질에 맞으면서도 난도가 높은 동작을 찾는다는것은 쉽지 않았다. 또 난도높은 동작을 찾았다고 하여 다되는것도 아니였다. 그 동작을 수행하여야 할

김춘필이 키운 세계적인 체육인들

인민체육인 홍은정

인민체육인 김광숙

선수가 있어야 했던것이다.

그는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품을 들이였다.

선수들에게 훈련을 주던 어느날 그는 한 선수에게 눈길이 갔다. 후날 체조계의 혜성으로 불리운 김광숙이였다. 정열이 좋고 투지면에서나 감각적인 면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우월한것이 광숙이의 특징이였다.

그는 광숙이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한편 스스로 동작수행과정을 리해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바치였다.

그의 노력으로 광숙은 새로운 동작을 숙달하는데 2년이상 걸린다는 관례를 깨뜨리고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난도높은 동작을 완성하여 국제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주체78(1989)년 제25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광숙은 고저평행봉종목에서 두개의 특기동작을 수행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국제체조련맹은 그가 수행한 특기동작들을 《김광숙동작》, 《김광숙반대허공돌기동작》으로 명명하였다.

그후 주체80(1991)년 미국에서 진행된 제26차 세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도 그는 고저평행봉종목에서 《김광숙동작》을 수행하여 만점을 받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김춘필감독에게 승리만 차례진것은 아니였다. 홍은정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감독은 은정이의 육체적잠재력이 남보다 특이하다는것을 포착하고 강도높은 훈련계획을 세웠다. 선수가 힘들어하면 힘과 신심을 주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나가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뒤로 허공돌며 옆으로 두바퀴반회전동작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국제경기에서 홍은정은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선수가 높은 실력을 소유하였어도 거기에 맞게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수 없다는 교훈을 춘필감독은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다.

춘필감독은 은정이의 훈련강도를 높이는것과 함께 마음속에 언제나 공화국기를 안고 살도록 왼심을 썼다.

쉴참이면 훈련일지의 첫 페지에 있는 글의 의미에 대하여, 공화국기를 휘날리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온 선배들의 선수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국제경기에서의 우승은 육체기술적조건과 함께 정신적으로 준비된 선수들에게만 차례진다는것을 선수가 스스로 체득하도록 하였다.

그후 주체97(2008)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29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체조조마운동종목에서 홍은정은 마침내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그후 수많은 국제경기대회들에서 그는 공화국기를 련속 올리였다.

후날 홍은정은 《경기장에서 애국가가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우리의 람홍색공화국기가 거연히 올라갈 때 나는 김춘필감독도 생각하였다. 그는 훈련장에서 나와 함께 땀을 흘리였다. 우리 두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화국기가 자리잡고있었다. 그는 선수들의 우승을 위해 수십년간을 밑거름이 되여왔다.》라고 말하였다.

이제는 60살이 넘었지만 김춘필감독은 공화국기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선수들을 키워가는 길에 자신의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선수들뿐 아니라 새세대 감독들에게 언제나 새로운것을 창조하도록 요구성도 높이고있다.

체육단의 많은 감독들과 선수들이 그를 두고 경험이 풍부한 감독, 선수선발에서 특기를 가진 감독이라고 부른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선수후비육성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는 김춘필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유모아

몸까기에 좋은 운동

의사가 비대증에 걸린 환자에게 권고하였다.

《당신 몸안의 그 많은 지방을 없앨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운동하는것입니다. 될수록 운동하십시오.》

《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마누라는 쉴새없이 말하고있지만 군력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　　*　　*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요즈음 우리 가정에서는 가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의 피아노선률이 자주 울리군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가 어머니날(11월 16일)에 엄마가 지은 노래를 연주하겠다면서 가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를 매일저녁 련습하고있습니다.

딸애의 연주를 들을 때면 종종 어떻게 되여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를 훌륭히 창작할수 있었는가고 물어보던 사람들 생각이 나군 하며 저도모르게 목이 메여오고 눈굽이 젖어듭니다.

그 사연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습니까.

몇해전 당창건기념일을 한달정도 앞둔 어느날 저녁 나는 어머니께 드리는 자식의 사심없는 진정이 담긴 노래를 써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삼가 드릴 꽃송이 엮으려니
천만자루 품들여 키워주신
그 정이 사무칩니다

이렇게 써놓고보니 지나온 나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국이 가장 어렵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대학을 다니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나는 생을 준 가장 가까운 혈육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외동딸이 대학생이 되였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에도, 처음으로 교단에 설 때에도, 30대에 박사가 되고 40대초엽에 교수의 학직을 받을 때에도 나는 어머니가 곁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부드러운 그 손길로 어루쓸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잠기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를 그려보면 기쁨에 넘친 모습이 아니라 고마움에 흐느껴우는 모습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이는 어머니의 말소리도 들려오는것만 같았습니다.

(딸아, 너는 당의 품속에서 이 어머니가 못다 준 사랑을 받으며 이렇듯 훌륭하게 성장해가는구나.)

생각해보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체101(2012)년 3.8국제부녀절날 나는 남편과 함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경축공연을 관람하고 사랑의 선물까지 받아안았습니다. 행복과 기쁨속에 명절의 그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초도를 찾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월이라고 하지만 차겁기 그지없는 날파도에 화락하니 젖은채로 얼어들었을 그이의 옷자락을 생각할수록 그이의 헌신과 로고가 눈물겹게 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눈비를 한몸에 다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행복과 영광의 넓은 길만 펼쳐주고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정이 나의 가슴에 가득차올랐습니다.

나는 저도모르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당의 크나큰 그 사랑을 노래하기에는 나의 재능이 모자랐고 체험의 깊이도 모자라 글줄을 더 이어갈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한개 절도 완성하지 못한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후 나는 그이께서 헤쳐가시는 화선천리길에 한송이 작은 들꽃이라도 피워드리고싶은 마음으로 새 교수방법을 착상했고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자애로운 그 영상이 못견디게 그리워 그이를 마중가는 심정으로 새 과목개척의 길도 걸었습니다.

크나큰 사랑에 작은 보답이라도 하려고 하였지만 그 길은 더 큰 사랑이 기다리는 길이였습니다.

당에서는 이름없는 교육자의 작은 성과를 헤아려 나를 조선로동당원, 강좌장, 학부장으로 키워주었고 공로있는 교육자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었습니다.

내가 바쳐온 보답의 마음이 한줄기 내물이였다면 당이 안겨준 사랑은 말그대로 바다였습니다.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교육자들이 드리는 꽃다발을 다시 안겨주시며 우리를 향해 몇번이고 허리굽혀 인사하시였습니다.

아, 고마우신 우리 어버이.

나는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손닳도록 우리를 키워주는 위대한 당의 사랑의 뜨거움을 느끼였습니다.

영원히 따르고싶다는 말, 끝없는 보답을 드리고싶다는 그 말을 모두 합쳐 나의 이 심장에서 터져나온 말,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눈비에 젖어든 어머니 옷자락 왜 그리 따스했던지》, 《길을 헛들가 마음흐릴가 아픈 매 드실 때 그 품에 더더욱 파고든 마음 왜 그리 젖어왔던지》라는 시어들을 엮어 단숨에 가사를 창작하였습니다.

허나 이 세상에 어머니사랑을 다 아는 자식이 없고 어머니사랑에 보답을 다하는 자식도 없습니다.

가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가 처음 TV로 울려나올 때 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였습니다.

그 노래는 분명 내가 지은 노래였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에 의하여 자자구구 주옥처럼 다듬어졌기때문이였습니다.

그때에야 나는 위대한 어머니-조선로동당의 그 사랑은 이 세상 누구도 다 노래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낳은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도 일찍 끝났으나 당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고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닌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속에서 더 억세게 성장해가며 영원히 부르고부를것입니다.

노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를.

김형직사범대학 어문학부 학부장
교수 박사 최남순

《처녀어머니》가 받은 축하장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날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언니들이 보내온 축하장을 펼쳐보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이제는 저도 초소에서 어머니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조국의 은혜에 보답할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 마음써오신 어머니의 그 진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이 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강선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

다섯째 경희 올림.》

이것은 얼마전 온 나라에《처녀어머니》로 알려진 남포시 천리마구역의 장정화가 받은 축하편지이다.

7년전《처녀어머니》로 처음 불리울 때의 아릿다운 얼굴모습이며 눈에 익은 외태머리까지도 변한것이 별로 없지만 오늘 장정화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였다.

그가 키운 일곱자식들가운데서 여섯명이 총잡은 병사가 되였다.

맏딸 은정이와 맏아들 룡범이를 비롯하여 여섯자식이 줄줄이 보내여온 축하장들마다에도 그처럼 사랑과 정, 불같은 맹세가 가득 어려있다.

해마다 어머니날이면 자식들로부터 의례히 이런 축하장을 받군 하지만 그에 접할 때마다《처녀어머니》의 가슴은 뜨거워지군 한다.

그러한 순간이면 장정화에게는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남남인 아이들을 한둘도 아니고 여렷이나 맡아안고서 애틋한 정을 기울이던 나날이며 7년전 5월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로부터《처녀어머니》라는 분에 넘치는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던 날들이 눈물겹게 돌이켜졌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엿하게 성장한 자식들의 미더운 모습이 어려와 무한한 행복감을 금치 못하는《처녀어머니》이다.

훌륭한 자식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기마련이다.

그는 말하였다.

《이제 몇해후이면 막내 자명이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도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앞장서 달려나가겠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을 억세게 키워가고있습니다. 나는 우리 자식들이 자신과 가정보다 먼저 조국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수 있다면 어머니로서 할수있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강선땅의《처녀어머니》의 마음뿐이 아니다.

뜻깊은 어머니날, 조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속에 되새겨안는 마음일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광천치료기지

룡강온탕원

조국의 유일한 바다물온천

산좋고 물이 맑아 금수강산으로 불리우고있는 조국에는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좋은 약수와 온천들이 많다.

평양에서 멀지 않은 남포시 온천군소재지에는 온천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치료를 다양하게 할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룡강온탕원이 자리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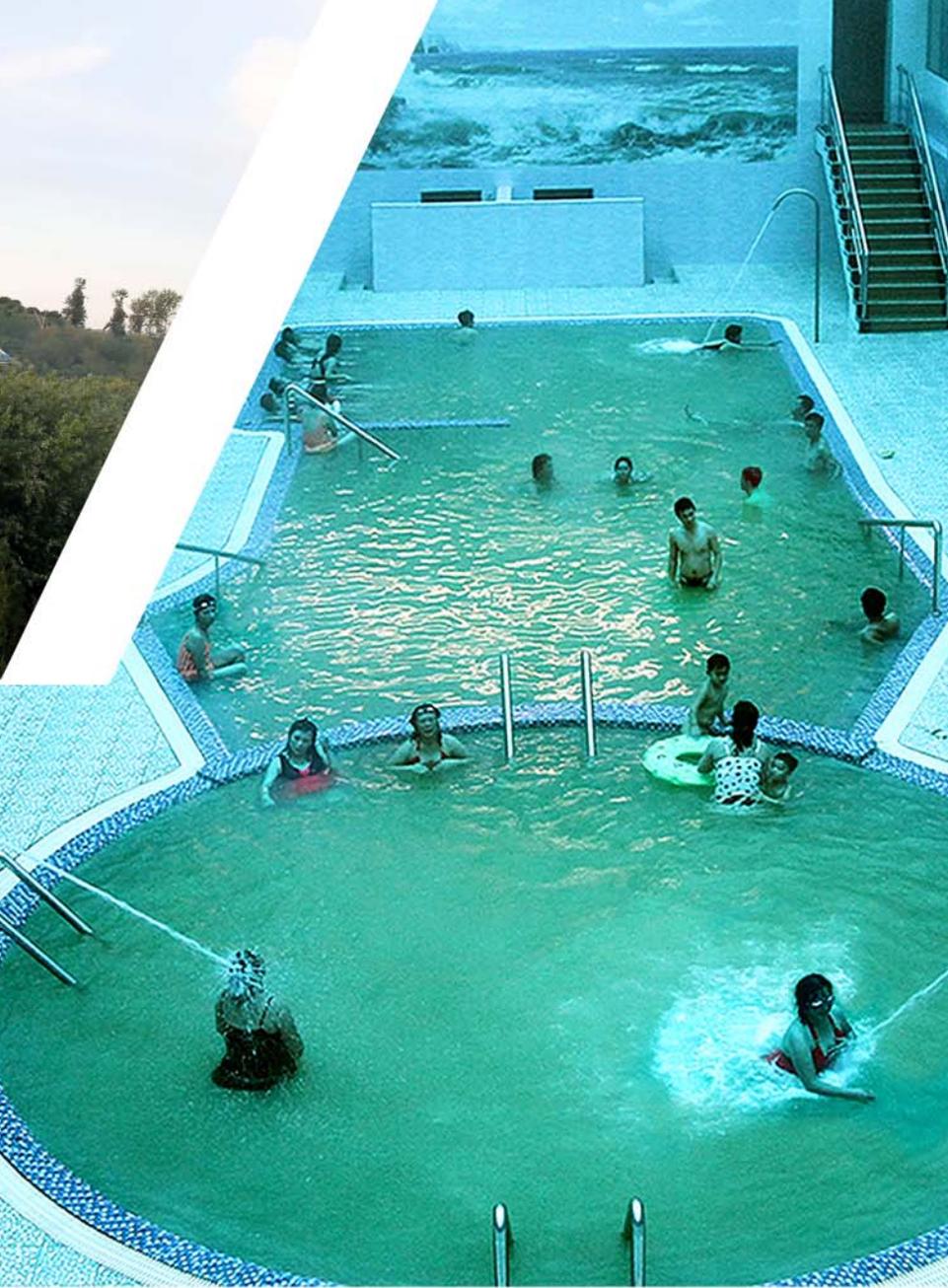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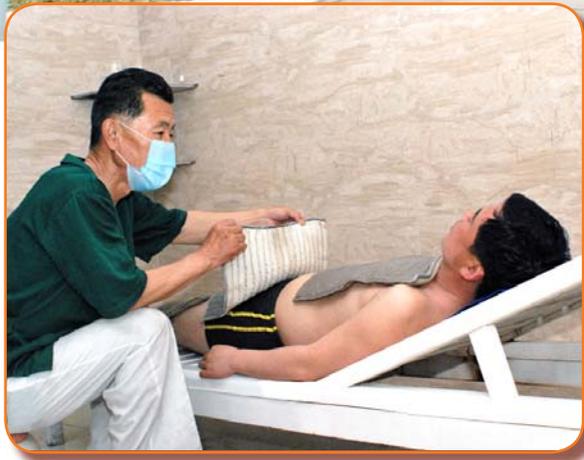
룡강온천의 광물질총량은 24~26g/L으로서 조국의 온천, 약수들가운데서 광물질이 제일 많으며 브롬이온도 적지 않게 들어있다.

룡강온탕원 의사 려금희의 말에 의하면 룡강온천은 라돈성분의 비방사능이 540~675Bq/L인것으로 하여 오랜 시간 온탕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여도 인체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고 치료효과가 더 높아지는 리상적이며 매혹적인 온천이라고 한다.

특히 이 온천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있는것은 조국의 온천들가운데서 유일한 바다물온천이기때문이다. 이러한 온천은 세계적으로도 몇개밖에 안되는것으로 하여 조국을 찾아오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제일 먼저 찾고싶어하는 명소로 손꼽히고있다.

룡강온천은 1480년경에 어부들에 의하여 발견되였다.

여러가지 치료효과를 가진다는것이 알려진 후부터 이곳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온천욕을 하였다.

울창한 수림속에서 여러가지 치료와 문화정서생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습니다.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룡강온탕원은 숙식조건을 갖춘 여러개의 호동들과 대중온탕원 등으로 꾸려져있다.

호동들에서는 호실들에서 온천물에 의한 치료욕도 할수 있다.

대중온탕원에서는 온천물로 덕수와 물놀이를 즐길수 있을뿐 아니라 안마, 견인치료, 미안 등도 다양하게 받을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룡강온탕원에서 후끈하게 온탕을 하고난 후 달고 시원한 예성산샘물을 마시면 하늘로 날아오르는듯한 기분이라고 기뻐하고있다.

룡강온탕원의 아름다운 자연풍치는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룡강온탕원으로는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즐겨 찾아오고있다.

량강도 삼지연시에 살고있는 김원배(70살)로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온탕을 하고나니 몸도 마음도 상쾌해져 10년은 더 젊어지는것같다. 오래동안 소화가 안되고 관절아픔이 심했는데 치료를 받은지 며칠만에 호전되는것이 알리였다. 룡강온탕은 정말 듣던바 그대로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다. 누구나 여기에 한번 오면 떠나고싶지 않을것이다.》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살고있는 리은심(42살)녀성과 남포시 항구구역에 사는 윤금희(45살)녀성은 10년전부터 해마다 꼭꼭 이곳에 와서 병치료를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조국인민은 룡강온탕원에서 치료를 받는 나날 모든것이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는 나라의 혜택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 철

모래그림창작가들

조국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에는 모래그림을 전문으로 창작하는 미술가들이 있다.

그들은 출판화창작단 모래그림창작실의 미술가들이다.

모래그림창조집단이 조직된지 두달만에 첫 작품을 내놓은 때로부터 그들은 지난 10여년간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그들의 노력의 산물인 음악과 모래그림작품들은 예술공연과 경축행사들에서 인기종목으로 되고있다.

뿌리기, 밀기, 긋기, 지우기 등 미술가들의 능란한 손놀림에 의해 한폭한폭의 정교한 그림이 무대영사막에 펼쳐질 때마다 관중들은 《미술가의 손동작 한번으로 훌륭한 그림이 완성되였다. 마치 요술을 보는듯하다.》, 《인물들과 대상들이 얼마나 생동한지 작품을 보관하고싶을 정도이다.》 등의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공훈예술가 김규권은 《우리는 그 어떤 형상기교에 앞서 작품마다에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뿐 아니라 민족적정서가 한껏 풍겨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음악과 모래그림 《세상에 부럼없어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등 인민들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노래에 맞추어 인민들의 웃음이 넘치는 생활들을 형상한 그림들로 엮어진 그들의 작품들은 창작되는것마다 명작으로 되고있다.

음악과 모래그림의 새로운 경

지를 개척하기 위해 미술가들은 형상수법과 기교를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결과 조선화의 몰골기법과 단붓질과 같은 독특한 기법들이 도입되여 현실을 보다 생동하면서도 선명하게 표현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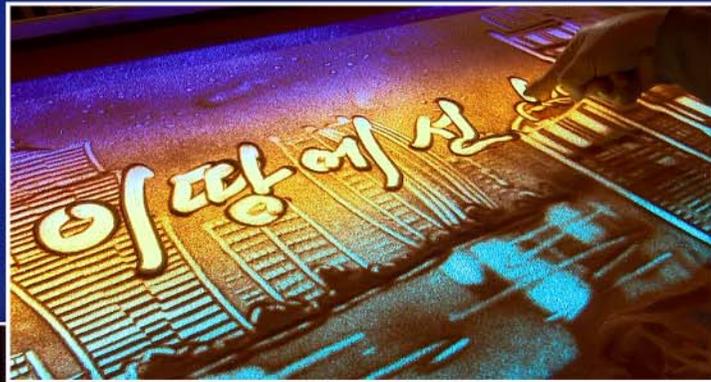
이뿐이 아니다.

그들은 미술실기능력을 높이는 한편 음악의 리듬과 박자에 맞추어 창작하는 모래그림의 특성으로부터 무대배우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성악련습과 유연성훈련도 꾸준히 하고있다. 이 과정에 남녀창작가들이 직접 노래와 춤을 추면서 그림을 그리는 형식의 작품인 《춘향전》이 창작되여 음악과 모래그림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창조집단은 매 미술가들의 독특한 개성을 결합하여 보다 훌륭한 집체작도 창조함으로써 관중들로 하여금 음악과 모래그림에 대한 신비함과 황홀감을 더 크게 느낄수 있게 하였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창작가들은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줄달음치고있다.

어떻게 하면 인민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하면서도 세련된 작품을 창작하겠는가 등 그들의 사색은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다양한 경축행사들을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77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심양, 단동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 영상작품에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7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념강연회가 심양에서 진행되였다.

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희 통일운동국 국장이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강연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신데 기초하시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전당**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여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전환적계기를 마련하시였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실 숭고한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정히 받드시여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적해외동포운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하며 재중조선인들을 조직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애국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영화문헌 《빛나는 삶의 품》 31 《충성의 한길에서 영생하는 삶》을 시청하였다.

단동에 있는 우리 나라 대표부에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찾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중남지부 성원들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단동시지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찾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단체들이 진정한 꽃바구니들

녀성협회의 경축모임이 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와 길림지구협회 등에서도 회고록학습, 사진 및 도서전시회, 글발표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에서는 항일혁명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부암동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였다.

*　　*　　*

조선로동당창건 77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기념강연회(왼쪽)에 참가하고 조선기록영화를 시청(오른쪽)하는 재중동포들

민족과 운명

희극명배우 김세영

조국인민들은 오늘도 영화배우 김세영(1923. 9. 17-1989. 10. 23.)을 《우편국장》, 《자전거반장》등의 애칭으로 즐겨 추억하고있다.

희극적인 색채가 짙은 독특한 연기로 사람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안겨준 인민배우 김세영.

배우가 영화의 화면들에 남긴 많은 인상적인 형상들은 그의 천부적재능의 발현이기 전에 공화국의 품에 안겨 삶을 누려온 그자신의 마음속에 고패치던 행복감의 분출이였다.

이루지 못한 꿈

1923년 9월 충청북도 청주군 가덕면 두산리에서 태여날 당시 김세영의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다. 그가 세상에 태여난지 얼마 안되여 어머니는 자식의 고사리같은 손을 움켜쥔채 숨을 거두었다.

탄식속에 들려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을 어렴풋이 그려보군 하던 그는 여섯살 잡히던 해에 아버지까지 잃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김세영은 삼촌네 집에 얹혀살면서 목숨을 연명해갔다.

그에게 있어서 설음을 가셔주는 유일한 시간은 읍거리에서 순회극단공연을 구경할 때였다.

그는 공연을 보면서 한바탕 웃고나서는 그들이 하던대로 배우흉내를 내군 하였는데 어찌나 신통한지 동네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웃음보를 터치군 하였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순간이나마 기쁨을 안겨주는것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보람이였다.

이 나날 어린 그의 가슴속에는 배우가 되려는 꿈이 자리잡게 되였다.

이악한 노력끝에 그는 1938년 여름 충청북도 청주군의 한 예술단체에 들어가 예술활동을 시작하게 되였다.

4년후 단장이 된 김세영은 일본에 끌려간 조선동포들속에서도 공연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반향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일본당국의 압력으로 공연은 중지당하고말았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야 그는 새로운 기분으로 창조활동에 뛰여들었다.

서울예술극장(당시) 배우가 된 그는 연극 《장백산》을 비롯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내용을 담은 여러 작품들에 출연하여 군중을 계몽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흠모의 정을 간직하게 되였다.

그러나 외세의 추종을 받은 민족반역자들의 책동으로 배우들이 중상을 당하고 무대장치물들과 무대막들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세와 그 앞잡이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족예술을 꽃피울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반미항쟁에 결연히 나섰다.

그러던중 그는 1949년 3월 불의에 달려든 경찰들에게 체포되여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게 되였다.

후날 김세영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나는 죽음같은것은 두렵지 않았다.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 감방벽을 들부시고 뛰쳐나가 북으로 달려가고싶었다.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간 동료들의 생활을 그려보기도 했다. 그들처럼 공화국의 품속에서 예술창조의 나래를 마음껏 펴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분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감옥에 면회를 오군 하는 안해에게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앞으로 예술을 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하라는 의미를 담아 아이이름을 민희라고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감방에서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던 그는 미제에 의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여가던 도중 탈출하였다.

서울이 해방된 후 김세영은 의용군에 입대하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의 예술적재능을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자기의 소망을 이룰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때부터 그는 예술인으로서의 새 삶을 누리게 되였다.

그가 처음으로 출연한 영화는 예술영화 《소년빨찌산》이였다. 그때로부터 그는 예술영화 《또다시 전선으로》, 《비행기사냥군조》, 《백두산이 보인다》, 《어랑천》, 《홍부전》, 《명랑한 무대》 등 수십편의 영화들에서 주단역을 맡아하였다.

그가 희극영화배우로서의 개성적모습을 뚜렷이 나타낸것은 주체58(1969)년부터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문학예술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이께서는 김세영자신도 알지 못하는 창작적개성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풍자극 《보충병》의 주역을 맡기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풍자극창조의 나날 그에게 웃기려는 생각이 너무 앞서기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지 못한다고, 사건전체가 웃음을 낳아야 하며 배우들의 진실한 체험과 형상을 통하여 웃음이 나와야 한다고 하시며 그가 풍자극의 주인공역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지도해주시였다.

언제인가 화면에 나타난 김세영의 웃는 얼굴에 어딘가 수심과 그늘이 비껴있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그를 부르시여 가슴속에 응어리진 지나간 일들도 하나하나 들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가 젊은 시절 감옥살이를 할 때 량손목에 난 수갑자리를 몸소 쓸어주시며 친부모의 정을 기울여주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사랑속에서 김세영은 희극배우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었다.

그의 영화배우 40년경력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희극배우 20년간은 삶의 최절정이였다.

그는 《사과딸 때》, 《공중무대》, 《북은 내가 치겠소》, 《우리 집 문제》(련속편) 등 100여편의 영화들에서

예술영화 《자랑끝에 있은 일》(1970년)중에서

예술영화 《북은 내가 치겠소》(1978년)중에서

예술영화 《우리 집 문제》(1부-10부, 1973년-1983년)

김세영이 주인공(우편국장)역을 수행한 예술영화 《우리 집 문제》는 가족, 친척들과 이웃들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기풍을 폭넓게 보여주고있다.

주역을 맡아 수행하였다.

관중은 김세영이 화면에 나오기만 해도 웃음보를 터뜨렸으며 웃음과 랑만을 안겨주는 그를 배우로서가 아니라 혈육과도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김세영은 이 나날에 인민이 사랑하고 화면에서 즐겨 찾는 인기배우로 성장하였다.

그는 생전에 자기의 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1950년에 벌써 지옥속에 던져졌던 사람이다.

어버이수령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몸이고 또 요행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있었을게다. 어버이수령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고 위대한 장군님은 내 운명의 보호자이시다. 덕을 입었으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게 인간의 의리가 아니냐.》

김세영은 주체61(1972)년 4월에 공훈배우칭호를, 주체64(1975)년에는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주체78(1989)년 10월 그가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아까운 동무, 재능있는 배우를 잃었다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면서 화환을 보내주시였다.

그의 묘는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두 제도에 비낀 녀성들의 모습

조국에서 11월 16일은 어머니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축하의 꽃다발과 기념품을 안겨주고있다.

그들속에는 최우등의 자랑을 안은 나어린 소년단원도 있고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새세대 청년과학자도,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친 체육인도 있다.

제48차 국제체조련맹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리세광선수가 한 말이 있다.

《어머니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나에게 <너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기 전에 조국을 먼저 생각하거라.>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말은 경기에 출전하는 나에게 새 힘을 북돋아주었다.》

이렇듯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알게 하며 나라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훌륭한 인간으로 키우고 내세우려는 어머니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있기에 자식들의 인사는 그토록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조국의 어머니들속에는 자기 가정보다 먼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녀성들이 수없이 많다.

로력영웅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문강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평천구역도로시설관리소의 조길녀,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의 허명금… 그들만이 아닌 수많은 녀성들이 박사, 혁신자, 예술인 등으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그리고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녀성들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조선을 방문하였던 아일랜드의 한 녀성은 세상에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조선녀성으로 태여나고싶다고 하면서 조선이야말로 녀성의 권리가 참답게 보장되고 녀성의 존엄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녀성들의 천국, 어머니들의 리상국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천국이 지구상 그 어디에나 있는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어머니들은 폭력과 살인, 불행과 고통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에서 실업의 첫째가는 피해자는 다름아닌 어머니들이다. 녀성들이 자식을 낳는것이 하나의 부담으로 되고있으며 자식을 낳지 않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그것은 녀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힘들게 얻은 일자리를 떼우게 되고 그로 하여 생존권을 잃게 되기때문이다.

언론들까지도 녀성들이 직업을 얻는다는것은 《황소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기에 녀성들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있다.

가혹한 생존경쟁과 극심한 생활고는 녀성들을 자살의 길로 몰아가고있다.

24살 난 녀성이 갖은 생활고와 가혹한 로동력착취에 시달리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과 일자리를 잃은 40대의 한 녀성이 높아가는 생계비를 충당할수 없어 22살때부터 4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였었다고 실토한 사실은 일본사회의 반인민적악폐의 일단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녀성들을 《말하는 도구》, 《아이낳는 기계》라고 내놓고 말하는 이 나라 정객들의 뿌리깊은 녀성천시가 낳은 필연적결과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나라, 그런 제도는 그 어디에나 있는것은 아니다.

본사기자 김일봉

진 국

진국(B.C. 12세기경-A.D. 8년)은 고조선, 부여, 구려와 함께 오래동안 존속해오면서 우수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나라 고대국가들중의 하나이다.

조선반도 중남부지역은 B.C. 3000년기중엽부터 고조선(전조선)의 여러 후국지역으로 되여있었는데 이 후국들이 B.C. 15세기중엽 전조선, 후조선의 교체시기를 전후하여 점차 합쳐져 삼한으로 되였으며 그중 큰 세력인 마한을 중심으로 B.C. 12세기경 고대국가 진국이 형성되였다.

진국을 세운 주민들은 조선중남부지역에 살던 고대조선주민의 한 갈래인 한이라고 불리운 정치세력이였다.

진국은 지역적으로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3개의 큰 지역으로 갈라져있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마한은 대체로 오늘의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지역을 포괄하며 진한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강원도의 남부와 경상남도의 동북부지역, 변한은 락동강하류 서쪽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남도의 대부분과 경상북도의 남쪽 일부지역을 각각 차지하고있었다.

진국의 초기수도는 월지국(충청남도 천안시)에, 말기수도는 건마국(전라북도 익산일대)에 있었다.

진국은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대표한 나라로서 그에 맞는 중앙관료체계와 지방통치기구를 가지고있었다.

진국에서 국왕(진왕)은 노예소유자적정권의 최고통치자로서 오직 마한출신귀족들만이 될수 있었다.

진왕밑에는 변한왕, 진한왕 등의 한왕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마한출신귀족들로서 각기 변한과 진한을 통치하였다. 진국의 진왕을 비롯한 노예소유자적귀족들은 마한을 진왕의 직할지로 하고 진한, 변한을 그의 속국지역으로 하는 독특한 통치체계를 확립하였다.

진국에는 78개의 삼한소국들을 지배하기 위한 지방통치기구도 갖추어져있었다.

진국의 지방통치기구에서 기본단위인 소국은 마한에 54개, 진한, 변한에 각각 12개씩 있었다.

진국에서는 소국들마다에 국읍, 읍락, 별읍이라는 지방행정단위들과 그를 지배하는 지방행정관리들을 두고있었다.

진국에는 노예제질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법과 군대가 있었다.

진국인민들은 노예제적인 질곡속에서도 물질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고조선의 청동문화의 영향하에 발생발전한 진국의 청동기는 고조선으로부터 분리된 후 독자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며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였다. 청동기와 함께 철기가 보급됨에 따라 로동도구가 개선되고 농업이 발전하게 되였으며 특히 야금업, 금속가공업, 직조업, 목공업, 구슬가공 및 금, 은세공 등 여러가지 수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농업을 위주로 하였던 진국사람들은 천문기상관측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일식현상과 혜성을 비롯한 여러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였다.

음악, 무용, 미술도 발전하였다. 악기로는 진한, 변한의 슬과 같은 현악기, 북, 갖가지 방울류와 같은 타악기가 있었다.

진국사람들은 일본렬도에 수많이 건너가서 발전된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일본의 고대문화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죠몽문화라는 신석기시대에 머물러있던 일본땅에 야요이문화라는 선진적인 금속문화, 농경문화가 갑자기 나타난것은 바로 진국인민들의 진출과 전파보급에 의한것이였다.

진국에서는 매해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가 진행되였다. 이러한 행사들은 민속놀이의 성격을 띠면서 락천적인 생활풍습을 보여주었다.

진국인민이 창조한 이러한 문화는 그후 봉건국가 백제, 신라, 가야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였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권승안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노비로부터 명화가로 된 리상좌

15세기말-16세기전반기 우리 나라 화가들중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 사람은 리상좌이다.

그만큼 리상좌는 그림그리기에 뛰여난 재간을 보여주어 당대 풍경화와 인물화분야에서는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하였다.

리상좌는 전라도 전주에서 출생하였는데 집안은 대대로 량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가정이였다.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도 노비라는 불우한 신분적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멍에는 리상좌가 또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신분관계는 매우 엄격하였다. 노비로 출생하면 그 신분을 영원히 벗지 못하는것이 바로 이 시기의 신분관계였던것이다. 그러나 리상좌는 흔치 않게 그림을 잘 그려 노비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이였다.

리상좌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는데 네댓살에 벌써 뜨락에서 모이를 쫒고있는 수닭을 생동하게 그려 상전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열댓살 나는 해 어느날 그는 지게와 낫을 가지고 골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대대로 종의 자식이니 어려서부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산에 가서 땔나무를 해가지고 오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무하러 산으로 올랐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그림에만 가있었다.

《에라 모르겠다, 조금만 그려보고 나무를 해도 한지게는 채우겠지.》

리상좌는 나무꼬쟁이로 오솔길이며 흐르는 개울이며 묘하게 생긴 너럭바위들을 정신없이 그려나갔다. 그러했으나 계속 그리고만싶어졌다.

어린 나이에 나무를 하면서부터 굳어진 버릇이였다.

아침에 산에 올라 삭정이를 조금 긁어놓고 나무꼬쟁이를 주어 그림을 그리느라면 해가 질 때도 있었다.

급해난 리상좌는 하지 못한 나무를 보충하려고 허겁지겁 낫을 휘둘러댔지만 한짐을 채운다는것이 그리 쉬운것은 아니였다. 이런 날이면 보리밥 한덩이도 차례지지 않았다.

주인은 해종일 놀기만 했다느니, 낮잠만 잤다느니 하면서 눈알을 부라리며 온갖 행패를 해댔다.

리상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림마저 편안히 그릴수 없는 자기 처지를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무를 조금 해놓고 벼랑끝에 홀로 선 소나무를 그려나가는데 웬 어른이 불쑥 나타나더니 그가 그리던 소나무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이름을 물었다.

당황해진 리상좌는 저 아래마을 량반댁 종이라고 대답하였다.

어른은 얼굴에 미소를 띠우더니 통에서 참지를 꺼내여 땅우에 펴놓고는 모서리를 돌로 지질러놓는것이였다. 그리고 연적을 그의 앞에 밀어놓으면서 말하였다.

《이자 그리던 로송을 여기에 그려보아라.》

상좌는 어찌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어른이 련속 재촉을 하자 리상좌는 붓을 들고 늙은 소나무를 재빨리 그려놓았다.

어린 나무군이 그린 늙은 소나무는 과연 신통했다.

절벽의 소나무와 그림을 번갈아보던 어른은 상좌에게 이름을 물어보고나서 목책에 적어넣더니 그날 하지 못한 나무값을 주는것이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주인이 리상좌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이였다.

주인은 상좌가 방안에 들어오자 《자, 내 화상을 그려보아라.》하고 말하는것이였다.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197×82. 2㎝) 비단・담채

상좌는 어리둥절했으나 마음을 다잡고 군말없이 주인의 화상을 그려나갔다.

한참후 완성된 그림을 보는 주인의 얼굴은 금시 밝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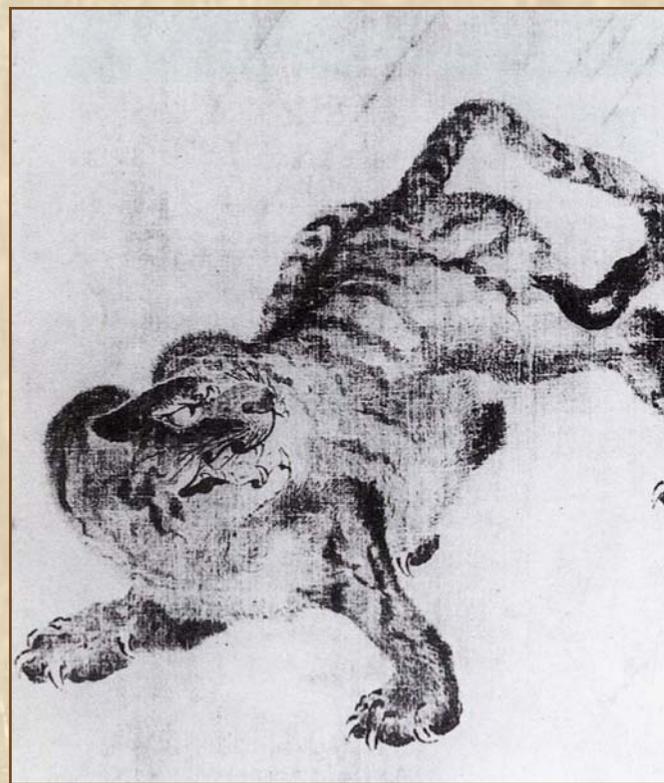
그림속의 화상이 자기의 모습과 신통히도 갈았던것이다.

기분이 몹시 좋아진 주인은 자식들을 차례로 불러들이여 참지에 그들의 화상을 그리도록 하였다. 어느 하나도 흠이 없었다.

주인은 자기 집 종이 이런 재간둥이인줄을 모르다가 며칠전에 다른 사람의 귀띔으로 알게 된것이였다.

그날 주인은 리상좌에게 무명옷 한벌을 주고 밥상을 차려주었다.

종의 자식으로 태여나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그였지만 음식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집에서 앓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이 눈치를 알아챈 행랑어멈이 주인 몰래 제꺽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주었다. 리상좌가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려고 집으로 달려가니 이미 아버지는 숨을 거둔 뒤였다. 아버지를 목메여 찾고찾았지만 굳어진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어쩌다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가져온 음식이 그만 제상에 놓일줄이야!

성난 범(138. 5×78. 5㎝) 마포・먹

그후 리상좌의 이름이 항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고 전라도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였다. 당시 감사는 그림에 대하여 일정한 조예를 가지고있었던지라 소문이 자자한 리상좌의 그림솜씨를 한번 보고싶었다. 어느날 감사는 리상좌를 불러 뜰안에 있는 오동나무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그가 그린 실물을 방불케 하는 그림을 본 감사는 이번에는 자기를 그려보라고 하였다. 감사는 그림들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왕이였던 중종은 리상좌를 수도 한성으로 불러들여 자기의 모상을 그려보게 하였다. 그림을 본 중종은 리상좌의 재능에 찬탄을 아끼지 않았고 노비신분을 벗겨주고 도화서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가 비천한 노비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봉건국가의 전문적인 미술기관인 도화서로 들어간데 대하여 어숙권의 《패관잡기》를 비롯한 옛 문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리상좌는 량반선비인 모의 종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여났는데 그의 풍경그림과 인물그림은 한때 세상에서 으뜸으로 여겼다.》

계속하여 기록에서는 리상좌가 그림을 하도 잘 그린 덕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도화서 화원으로 된데 대하여 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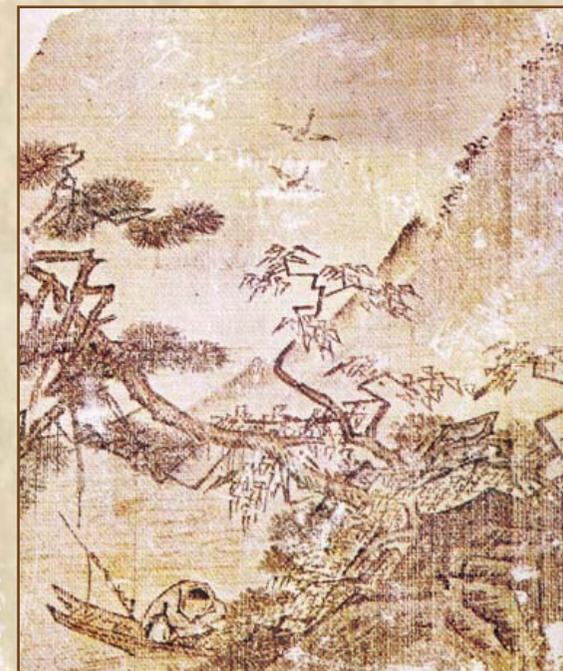
이상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리상좌가 노비출신으로서는 감히 생각할수도 없는 도화서의 화원으로 되고 그의 노비신분도 량인으로 바뀌였다고 볼 때 그의 그림재주가 얼마나 뛰여났는가 하는것을 가히 짐작할수가 있다.

도화서에 들어간 리상좌는 수많은 풍경화와 인물화를 그렸는데 그 수법과 기량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경지에 올라섰다.

그가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된것은 《성난 범(맹호도)》을 그린 후부터였다고 한다.

그후 그는 《달밤에 소나무밑을 거닐며(송하보월도)》를 비롯한 많은 그림을 그렸다.

리상좌는 이렇게 독특한 형상을 창조하여 조선봉건왕조회화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쪽잠(18.7×15. 4㎝) 비단・담채

꽃과 새(33. 8×30. 5㎝) 비단・먹

사물의 리치가 담겨진 24절기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로 일러오는 립동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습니다.

11월 7일이나 8일에 드는 립동을 전후로 하여 조국의 농촌들에서는 배추와 무우를 수확하고 가정들에서는 민족적풍습의 하나인 김치를 담그는 류다른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마 날씨가 추운 북쪽지대에서는 립동전에, 기후가 온화한 남쪽지방들에서는 립동후에 김장(김치를 담그는 일)을 끝낼것입니다.

예로부터 립동을 전후로 한 시기를 김장철로, 11월을 김장달로 일러오고있습니다. 조국의 가정들에서는 바로 이 절기들에 다음해 봄에 가서 장을 담글 메주도 빚고 구들도 손질하는 등 겨울나이준비들을 합니다.

아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오게 될 립동뿐만아니라 24절기마다에는 그 어느것이나 다 사물의 리치가 담겨져있습니다.

그럼 이번호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조선민족이 창조한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24절기에 사물의 리치가 어떻게 담겨져있는가 하는데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아가는 자리길을 스물넷으로 나눈 기준점이며 15~16일만에 오는 매 절기마다 일정한 기후적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옛사람들은 5일을 하나의 《후》라고 하면서 이 5일사이에 계절적으로 변하는 징후가 있다고 보았으며 《후》가 3개 모이면 《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와 후를 합쳐 기후라고 하였습니다.

24절기는 매달 두 절기씩 들어가며 매해 거의 같은 날에 같은 절기가 오게 됩니다.

24절기에는 립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립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립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립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이 속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선인민은 《농사는 천하지대본》으로 일러왔습니다. 때문에 24절기의 이름들은 모두 천문력이나 철바뀜, 농경생활과 관련되여있습니다.

립춘은 양력 2월 4~5일경으로써 봄계절에 들어선다는 뜻이고 우수는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입니다.

립춘외에 립하, 립추, 립동은 여름, 가을, 겨울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들입니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여 꿈틀거리는 때라는 뜻이며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으로 이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조국인민들의 24절기풍습을 보여주는 옛 그림의 일부

거의 같아집니다.

이 시기에 산과 들에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먹으면 봄의 향취를 느낄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일의 흥을 돋구고 한해 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악놀이도 진행하고있습니다.

하늘이 점차 맑아지고 따뜻한 봄날씨가 시작된다는 청명을 계기로 각지에서는 영농작업을 다그치게 되며 조상의 묘를 찾아봅니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는 속담에도 있듯이 양력으로 4월 20일이나 21일에 드는 곡우는 벼, 조, 참깨 등 작물의 씨붙임을 하는 시기로서 곡식이 자라는데 유익한 비가 내리는 절기라는 뜻을 담고있습니다.

립하와 소만무렵의 날씨는 밭작물들이 자라는데 유익하며 망종에는 모내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하지날의 낮시간은 1년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소서는 여름의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뜻이고 대서는 가장 무더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처서는 《더위가 물러간다》, 백로는 《흰이슬이 내린다》, 추분은 《가을철의 한복판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추분절기에는 논밭에서 거두어들인 햇곡식으로 송편, 설기떡, 노치와 같은 여러가지 특색있는 떡들과 밤단자같은 음식들을 만들어먹으며 겨울동안 먹을 나물을 말리웁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씨름, 바줄당기기 등과 같은 민속놀이들을 많이 하군 합니다.

한로와 상강때에는 날씨가 차지고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심해지며 밤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소설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대설에는 한해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립니다.

겨울에 이르렀다는것을 일러오는 뜻인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에 드는데 이날에는 한해가운데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깁니다. 동지날에 푹 삶은 팥에 백미와 물을 두고 쑨 동지죽(동지팥죽)을 먹으면서 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들면서 화목을 도모하는것은 조선민족의 오랜 풍습의 하나입니다.

지난날 녀성들은 동지죽을 쑬 때 다른 새알심들보다 큰 새알심을 몇개 만들어넣어 아이들이 먹게 하였는데 큰것이 차례지는 아이는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소한은 겨울추위가 시작된다는 뜻을, 대한은 년중 제일 추운 때라는 뜻을 담고있지만 사실 《대한이 소한네 집에 갔다가 얼어죽는다》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소한추위는 대한추위에 못지 않게 맵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사람들은 철이나 절기에 사물의 리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맞게 일하고 생활하여왔을뿐만아니라 24절기날들에 여러 의례행사를 진행하거나 계절에 맞는 특색있는 음식들을 해먹었으며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였습니다.

조선민족이 창조한 발전된 민족문화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인 24절기풍습은 오늘날에도 매 민족성원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심어줄뿐만아니라 민족단합에 이바지하며 하나의 관습으로 전해지고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24절기날들에 이웃들과 함께 계절에 맞는 특색있는 음식들을 해먹고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하루를 즐겁게 보내며 화목을 도모하는 풍습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룬 외금강 -

외금강의 련봉들

자연미가 다양하고 지역마다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있는 금강산은 크게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나누며 그것을 다시 수십개의 구역과 동(계, 봉)으로 나눈다.

이번호에서는 외금강의 아름다운 광경을 소개한다.

외금강은 금강산의 주봉을 이루는 비로봉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은 중앙련봉과 조선동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진 해금강사이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외금강은 기세차고 웅장한 산악미를 보여주는 관음련봉, 옥녀봉, 세존봉, 채하봉 등 수많은 봉우리들과 천태만상의 기암괴석, 구룡연계곡과 한하계 등 이름난 계곡들, 거기에 크고작은 폭포와 담소들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광경을 펼치고있다.

외금강은 지역적특성과 탐승로정에 따라 온정구역, 만물상구역, 구룡연구역, 수정봉구역, 천불동구역, 선창구역, 백정봉구역, 선하구역, 발연소구역, 송림구역, 은선대구역으로 나눈다. 여기에서도 류달리 경치가 뛰여난 곳은 구룡연구역과 만물상구역, 수정봉구역이다.

구룡연구역은 외금강에서 으뜸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구역으로서 세존봉, 옥녀봉과 관음련봉사이의 긴 구룡연계곡에 이루어진 명승지이다.

구룡연구역에는 묘하게 생긴 금강문이 있으며 주변에는 병사바위, 성벽암, 토끼바위(또는 거북바위) 등 기암들이 있다. 토끼바위에는 옛날 금강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나라에서 내려왔던 토끼가 금강산의 절경에 감탄하여 《야!》 하고 입을 벌린채 그만 돌로 굳어졌다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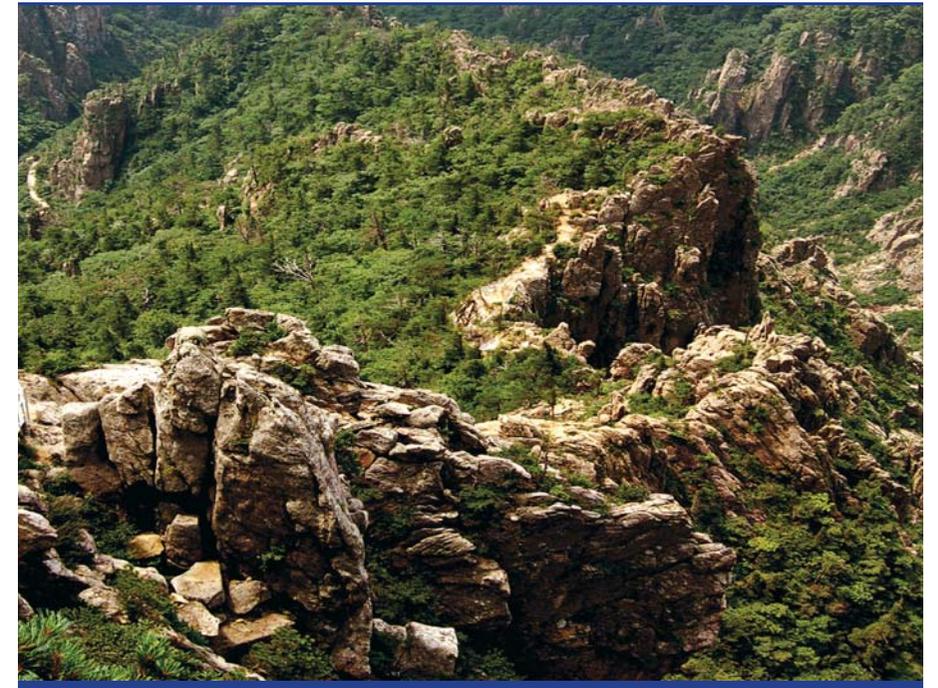
금강문을 지나면 옥류동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옥류동이라는 지명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구슬이 되여 흘러내린다고 하여 불리웠다고 한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이름있는 폭포들, 그 물이 차고넘치는 담소들과 기암괴석들을 가지고있는 옥류동은 금강산에서 대표적인 절승의 하나이며 구룡연구역에서 4대절경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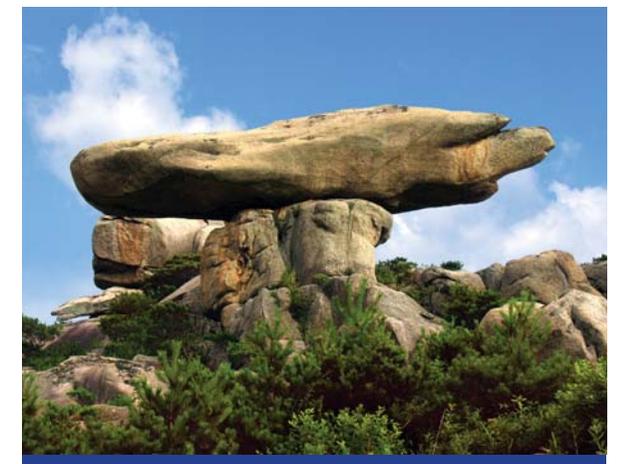
이곳에는 50m높이의 옥류

만물상의 가을(←)

금강산의 산악미를 대표하는 만물상구역은 깎아지른 층암절벽들과 온갖 모양을 나타내는 기암괴석들로써 특이한 경치를 보여주고있다.

천선대에서 본 《바위섬》(→)

동석동의 배바위(↘)

천불동의 기암(↘)

귀면암(↓)

폭포와 금강산의 담소들중에서 제일 큰 옥류담이 있다. 그런가 하면 두개의 파란 구슬을 련달아 꿰여놓은듯한 련주담과 그우에 속살이 비치는 얇디얇은 비단천을 가볍게 드리운것같은 련주폭포가 주변의 숲과 어울려 옥류동골짜기에서도 독특한 풍치를 보여주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나라 3대명폭의 하나로, 금강산4대폭포가운데서도 으뜸가는 폭포로 널리 알려진 구룡폭포, 금강산4대폭포중의 하나인 비봉폭포와 먼 옛날 유점사늪에서 53불과 싸운 9마리의 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든 구룡연, 경치가 좋고 물이 맑아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올라갔다는 《금강산팔선녀》전설이 깃들어있는 상팔담이 뛰여난 절경을 이루고있다.

만물상구역은 천연조각미의 기암들과 폭포들, 골짜기의 울창한 숲 등이 서로 어울려 뛰여난 경치를 펼치고있다.

생김새가 마치 세상만물을 한곳에 모아놓은것같다 하여 만물상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는 구름이 흐를 때면 바위들이 움직이는듯하여 마치 하늘에서 신선들이 내리는것같다는 삼선암과 벼랑우에 외따로 솟아있는 독선암, 둥그런 돌 하나를 이고 서있는 봉우리같은 거악한 기암인 귀면암을 볼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세지봉에는 곰, 독수리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바위들이 있고 그 왼쪽에는 칠층암이 있다.

칠층암은 7층으로 된 바위로서 그 맨 웃층 벼랑끝에 신통히도 앉아있는 사람모양을 한 바위가 묘하게 있는것이 볼수록 신기하다.

만물상 한복판의 높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천선대는 세상 만물들을 돌로 깎아놓은듯한 천만가지 모양의 바위들이 꽉 들어찬 뛰여난 경치를 한눈에 바라볼수 있는 전망대이다.

천선대북서쪽의 벼랑중턱에는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얼굴치장을 하였다고 하는 둥그스럼한 2개의 돌확이 있다. 이것이 천녀화장호(천녀세두분)이다.

돌확은 기묘하게 생겼으며 거기에는 사철 깨끗한 물이 고여있다.

천선대와 천녀화장호에는 《비단녀와 천계꽃》이라는 전설이 깃들어있다.

수정봉구역은 금강산의 많은 봉우리들가운데서도 천연수정이 있는것으로 하여 특이한 경치를 보여주고있다.

수정봉은 맑고 흰 수정이 들어있는 화강암으로 되여있다.

먼 옛날에는 산 전체가 보석덩이와도 같이 반짝이였다고 한다.

수정봉은 철갑모를 눌러쓴것같은 통바위봉우리로서 바위표면은 인공적으로 다듬고 연마한것처럼 매끈하다.

수정봉릉선에는 자라바위, 비둘기바위 등 기암괴석들이 있으며 수정봉으로 오르는 길에는 금강산의 자연돌문가운데서 가장 큰 돌문의 하나인 수정문이 있다. 수정문은 하나의 통바위로 되여있으며 그 생김새가 궁륭식으로 된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외금강지역에는 천불동구역의 2단폭포와 선주폭포, 선하구역의 천리마바위, 거북바위, 봉선바위, 선창구역의 금강못, 군상바위, 은실폭포, 구룡폭포를 축소하여놓은것같은 금주폭포, 선창폭포 등 이름난 명소들이 수없이 많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진호

비봉폭포(←)

상팔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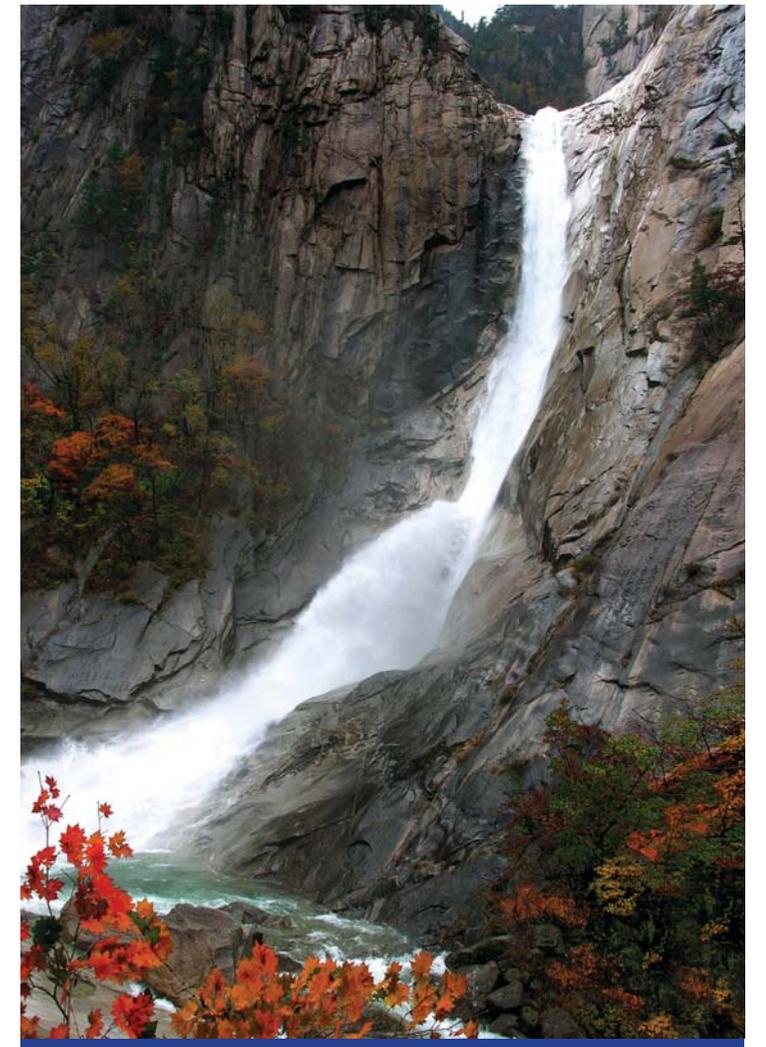
구룡폭포(→)

구룡폭포는 개성의 박연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명폭포의 하나로, 십이폭포, 비봉폭포, 옥영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폭포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다.

폭포우에는 상팔담이 있고 폭포의 맞은편에는 구룡각이 있다.

구룡폭포는 주체69(1980)년 1월 천연기념물 제225호로 지정되였다.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